

# 폭염이 물렸거라, 남도 페스티벌 나가신다

25일 '구례 자연드림 록페'  
이승환·자우림 등 출연  
순천만동물영화제 49편 상영  
31일 목포세계마당축제 개막



이승환



영화 '다이카'

순천만 정원, 목포 골목길 여행, 지리산의 정취...  
여름 휴가를 맞아 전남 지역 곳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여행에 근사한 문화축제가 함께 하면 더 즐겁다.

록 페스티벌은 여름철 대표 행사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지난 2015년 첫 선을 보인 구례 자연드림 록페스티벌은 아름다운 지리산의 정취와 어우러진 자연친화형 록 페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오는 25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의 주제는 '내 안의 즐거움(樂Rock)'을 찾아 떠나는 탐험'이다. 올해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는 '라이브 황제' 이승환이다. 수많은 콘서트를 통해 관객들을 매료시켜온 이승환은 이번에도 압도적인 무대연출과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김윤아의 독특한 음색과 색깔있는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는 밴드 '자우림'도 무대에 서며 '별빛이 내린다'로 이름을 알린 4인조 밴드 안녕바다, 로맨틱펀치, 정훈밴드, 라이브유빈, 오리엔탈소커스, 406호 프로젝트 등도 무대에 오른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와 구례자연드림파크 곳곳을 탐험하는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체험, 친환경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순천으로 여행을 떠났다면 에어컨 빵빵한 영화관에서 잠시 휴식을 갖는 것도 좋다.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CGV 7, 8관에서 열린다.

개막작 '동물원'을 비롯해 19개국 49편의 동물영화가 상영되는 이번 영화제는 '우리결의 동물들', '클로즈업' '키즈드림' '추억의 동물영화', '황윤특별전'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무료로 상영된다.

상영작 중 손소영 프로그래머는 7마리 길고양이의 이야기를 담은 터키 영화 '고양이 캐디', 인간 대신 우주로 날아간 개 '다이카'와 수심 마리 실험동물을 주인공

으로 삼은 체코 클레이애니메이션 '라이카'를 추천했다. 흥보대사 구허리는 픽사 애니메이션 '빅스 라이프', 임순례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 로드킬의 아픔을 담은 '어느 날 그 길에서'를 추천했다.

상영 1시간전까지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네이버 예약 서비스에서 예약 가능하며 한 개의 ID로 한 회차당 4장까지 예약 가능하며, 접수 완료시 예약관련 문자가 수신되면 당일 현장 티켓 수령해 관람할 수 있다.

제17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 오는 8월 31일 개막놀이를 시작으로 한여름밤 목포 원도심 일대에서 휴가철 관광객을 유혹한다. 극단갯돌(대표 문관수)과 사) 세계마당아트진흥회(이사장 박석규)가 주최하는 축제는 개막놀이, 해외공연, 국내우수공연, 예향남도공연, 부대행사 등 총 100여개의 공연과 행사, 900여명의 출연자가 축제에 참가해 나흘 동안 다채롭게 펼쳐진다.

매년 화제현장을 몰고 온 개막놀이는 올해 '육단아 놀자'로 목포의 물지게꾼 육단이가 거대인형으로 변신, 5m 높이로 제작한 인형을 시민들이 조정하며 화려한 퍼레이드를 연출한다.

축제는 9월3일까지 마당극, 인형극, 탈놀이, 마임, 미술, 서커스, 춤, 국악, 콘서트 등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공연이 마당에 즐비하다. 미국, 캐나다, 태국, 아프리카 등 세계 8개국 13개팀의 공연, 국내 32팀의 명품공연, 전남 48팀이 초청된다.

또 얼음조각 만들기 체험놀이, 목포진 어린이수교교대식 재현놀이, 목포근대 역사여행 벽화놀이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신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자세한 일정은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홈페이지(www.mimaf.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영화·드라마 속 음악, 공원에서 만나요

18일 광장음악회

'영화와 드라마 속 음악을 만나세요.'  
제87회 광장음악회가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불빛근린공원에서 열린다. 성악가 정찬경씨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영화음악 페스티벌'을 타이틀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 이유허정(피아노), 김윤희(플루트), 박효은(첼로), 김민호(드럼)씨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 '시네마 천국' 메인 테마곡 영화 '시스터 액트' 중 'I will follow him'를 들려주며 광주 Youth Singer's가 '거위의 꿈' '나가거든' 등을 선사한다.

또 바리톤 김제선씨가 영화 '노랑할미' 과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주제곡 'She'와 'You are my everything', 조용필



바리톤 김제선



소프라노 이환희

의 '바람의 노래'를 들려주며 소프라노 이환희씨는 영화 '미션' 중 '넬라 판타지아', 뮤지컬 '마이페어레이드' 중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을 선사한다. 또 두사람은 함께 호흡을 맞춰 영화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를 선사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30주년 한정판 출간

2016년 1월 세상을 떠난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대표작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30주년 기념 한정판(사진)이 나왔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신영복 선생이 20여 년간의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 출소할 무렵인 1988년 9월 5일 햇빛출판사에서 처음 출간됐고, 도서출판 돌베개가 새로운 글을 추가해 1998년 8월 증보판(제2판)을 펴내 지금까지 약 35만 부가 팔렸다.

신영복 선생은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재직하다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옥살이하는 동안 가족에게 정갈한 글씨로 편지를 써서 보냈고, 이 서신을 묶은 책이 바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다.

돌베개가 제작한 한정판은 '감옥으로



부터의 사색'양장본(제3판)과 나무 액자로 구성됐다. 나무 액자는 모두 5종이 제작됐으며, 임의로 한 개가 제공된다. 한정판 수량은 5000개이며, 가격은 2만 5000원.

돌베개는 한정판이 모두 팔리면 일반 무선본 제3판을 제작할 방침이다. 제3판은 내용이 이전과 같지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크기를 키우고 편집을 새롭게 했다.

/연합뉴스

## 광주문화읽기



김선철 작곡가

지난 7월 필자는 오랜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찾아 추억 여행을 했다. 1987년 유학생활을 시작한 곳이어서인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모차르트, 베토벤의 발자취를 따라 비엔나의 거리를 걷다보면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처럼 마치 내가 그들과 만나 나의 작품에 대해 대화하는 상상에 빠지게 된다.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서는 매년 봄과 겨울시즌에 비엔나 악우협회와 국립 오페라 극장 등에서 세계 최정상급 음악가들의 연주회가 매일 열린다. 필자는 자주 공연장을 찾았고, 거장들의 작품을 실황연주로 감상했던 가슴 벅찬 경험은 필자의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비엔나의 공연장들은 7, 8월 두 달간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공연장이 쉬는

그래서 특별한 예술적 식견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전당을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결승전을 전당 스크린을 통해 보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비엔나 필름페스티벌이다. 전당은 필름페스티벌을 기획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대형스크린이 설치돼 있고 지하와 지상에서 관

## 문화전당 광장서 즐기는 필름페스티벌

이 기간동안 국립 오페라 극장 등에서 열린 공연실황 및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공연을 엄선해 비엔나 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스크린을 통해 무료로 상영하는 페스티벌이 열린데, 이것이 비엔나를 대표하는 큰 축제로 자리잡았다.

이곳에 설치된 상설무대는 30㎡초대형 스크린과 최고의 음향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사람들은 오페라, 오페레타, 무용, 클래식, 재즈 그리고 팝 콘서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영상을 최상의 음질로 경험할 수 있다. 또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광장 입구에 들어선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 부스에서는 각국의 특별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비엔나에 시청 광장이 있다면 광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광장이 있다. 전당이 개관한지 3년이 됐고 공연예술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당을 가보지 않은 광주 시민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다. 행사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전당의 최첨단 시설과 기획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어렵게 준비한 공연에 일반 시민들이 무관심으로 찾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있다.

그럼 프로그램 구성만 잘하면 되는 데 전당 프로그램과 세계적인 공연 필름 상영은 물론이고 광주시립교향악단, 창극단, 국악관현악단, 오페라단, 발레단, 합창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여러 시립단체의 영상을 상영한다면, 이는 시립예술단체의 홍보와 관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족한 음향시스템만 전당의 조건에 맞게 보충한다면 시스템적으로는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또한 전당의 지하광장은 자체가 울림으로 돼있어 야외 공연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필름페스티벌과 동시에 전당 일원을 무대로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엔나 필름페스티벌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인의 축제로 발전되었듯이, 전당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필름페스티벌을 통해 시민들의 발걸음을 모으고, 낯설고 어렵게만 느꼈던 전당의 훌륭한 공연 예술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면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